

# 별자리



글 · 그림 유이현

## [교실 속 그림책128] 별가사리

2017년 11월 28일 초판발행 2017-00128

| 지은이 | 유이현

| 지도 및 제작 | 이현아

| 펴낸곳 | 교육미술관 통로

| 홈페이지 | [www.museum-tongro.com](http://www.museum-tongro.com)

| ISBN | 979-11-89671- 67-9 75810 : 비매품

| 총서명 | 교실 속 그림책

| 세트번호 | 979-11-957446-5-7 (세트) 75810

이 책의 저작권은 지은이 유이현과 교육미술관 통로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하늘과  
바다를  
가리키는



## 머 리 말

교실 속 그림책 창작 프로젝트로 여러분과 만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그림책은 [교실 속 그림책]이라는 총서명을 가진 여러분 자신만의 책입니다. 그림책 창작 과정을 통해 한 명의 교사이자 첫 독자로서 여러분의 내면 세계와 만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독자로서 책을 읽었습니다. 이제 한 권의 책을 구상하고, 기획하여 작품을 완성하는 경험을 통해 필자의 정체성을 가진 어린이작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능동적이고 입체적인 시선으로 책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가슴 속에 자기만의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책이 여러분이 품은 빛과 언어를 전달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이작은 한 권의 책을 시작으로 여러분들이 평생 이어나갈 무궁무진한 창작의 세계를 응원합니다.

## 작가의 말

나에게 그림책쓰기란,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왜냐하면 그림책을 쓰면서 나의 경험과 생각, 느낌이 그대로 종이에 나타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책에 나오는 그림을 가볍게 보기도 했었는데 직접 그려보니까 정말 힘들다는 걸 알게 됐다. 그림책을 만들고 그림 그리는 사람들을 다시 한 번 존경한다. 내 꿈은 작가이다. 그래서 이 경험이 소중했다. 글쓰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기도 좋아하는 나는 이 시간이 정말 흥미로웠다. 이 책을 읽는 독자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못났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저도 저 자신을 못난 불가사리라고 생각했었어요.

'불가사리는 별이 될 수 없단다.'

그런 말에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아무도 모른다면 직접 해보면 되요.

불가사리도 빛을 만나면 별이 될 수 있어요.

이 그림책을 통해 못나고 평범한 당신과 나를 위로합니다."






깊고 어두운 바닷속에는  
바다보다 더 심장이 차가운 동물들이 살고 있다.  
그 사이에 조그마한 불가사리.



깜깜한 바위 절벽에서 사는 불가사리는 외롭다.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는 이가 없으니까.  
자꾸만 자신이 못한 것처럼 느껴진다.





“거기 누구 없으세요? 누구 없으세요?”

“거기 누구 없으세요” 불가사리의 작은 목소리는 커다란 메아리가 되어 돌아온다.





이 세상에 자신만 혼자 남겨진 기분.  
두려움, 두려움 만이 어둠 속에 가득 한 기분.



불가사리의 눈에서 떨어지는  
진주 같은 눈물.  
그 눈물을 떨어뜨리지 않으려  
고개를 치켜든다.


A watercolor illustration of a starry night sky. The background is a mix of dark blue, grey, and purple, with numerous small white and yellow dots representing stars. Several larger, stylized star shapes are scattered across the scene, each surrounded by concentric, swirling lines in shades of yellow, orange, and blue. The overall style is soft and artistic, with visible brushstrokes and a dreamy atmosphere.

고개를 들자, “와아.”

불가사리의 입에서 탄성이 흘러나왔다.

수천 개의 별들이 떠있는 하늘을 그제야 바라보았던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불가사리의 눈을 사로잡았다.  
그 빛에 속상한 마음을 위로 받았다.

‘아, 나도 저 별처럼  
무언가 쓸모 있는 존재가,  
대단한 존재가 될 수 있다면...’







불가사리는 자신은 절대 그런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만약에... 만약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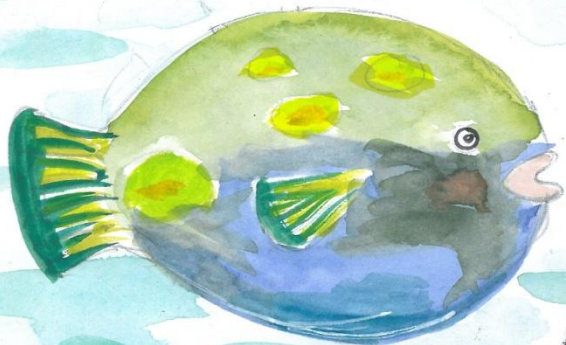
불가사리는 커다란 고래에게 물었다. “혹시 별이 되는 방법을 알고 있니?”

하지만 듣지 못한 고래는 그냥 지나가 버렸다.

“별이 되는 방법을 알고 있니?”

“그래? 너는 알고 있니?”

멍청한 복어는 아무 생각도 없는 듯하다.





“별이 되는 방법을 알고 있나요?”

“먹어버리기 전에 씹 거져버려.”

상어는 오히려 화를 내며 협박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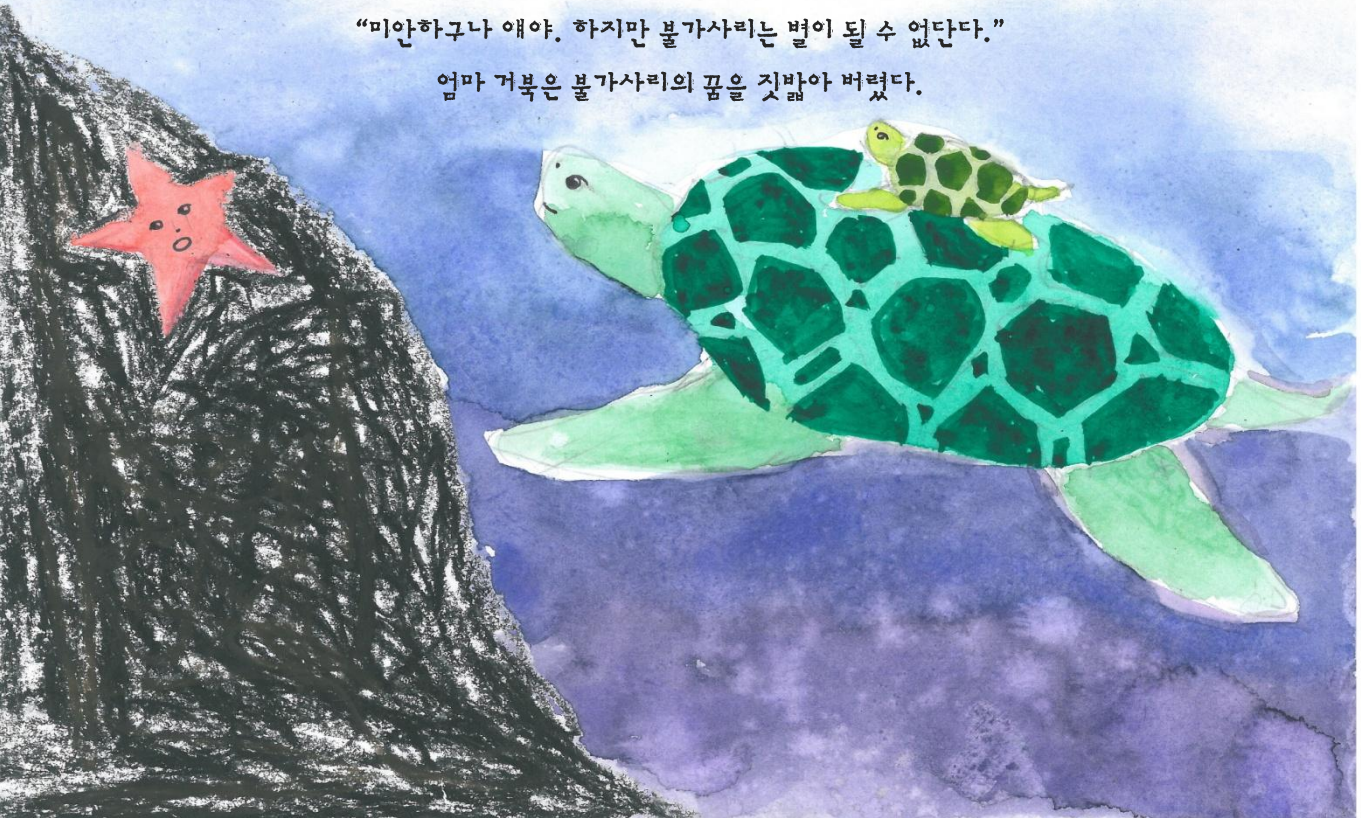





“별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미안하구나 애야. 하지만 불가사리는 별이 될 수 없단다.”

엄마 거북은 불가사리의 꿈을 짓밟아 버렸다.







하지만 불가사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절벽을 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아무도 모른다면

내가 직접 올라가 보겠어.’





저 멀리 밝은 빛이 보이기 시작한다.  
불가사리의 심장이 뛰기 시작한다.



드디어 별이 된다고  
생각한 순간,  
손으로 꼭 잡고 있던 바위가  
부서져버렸다.





밑으로...

밑으로...

불가사리는 어둠 속으로 떨어졌다.

떨어지는 순간에도 불가사리는

별이 되고 싶은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렸다.






“쿵!”

바위 위로 떨어진 불가사리는  
데굴데굴 굴러갔다.








다시 눈을 떠보니 절벽 아래, 그 자리.

모든 것이 다시 똑같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불가사리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 어떤 별보다도 밝게 빛나고 있는 손,  
빛이 옮겨 앉은 손.





하늘을 품은 불가사리에

별빛이 옮겨 앉았다.

그 빛이 어둠고 차갑던

깊은 바닷속을 비춘다.

불가사리는

어두운 바닷속에서

별처럼 빛났다.





별가사리.

별이 된 불가사리는 이제 자신을  
별가사리 라고 부른다.



2/11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

별가사리 [전자자료] / 지은이: 유이현

서울 : 교육미술관통로, 2017

전자책 책

ISBN 979-11-89671- 67-9 75810 : 비매품

창작 그림책[創作--冊]

813.8-KDC6

CIP2017007088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 (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r>)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CIP2017007088)



# Philosophy

[통로, 스며 흐르다]

## 1. 흘러가다

교육미술관 통로는 내가 담아낼 수 있는 것보다 더 풍요로운 아름다움을 흘러보내는 연결통로(헨리나우웬, 2011)가 되고자 합니다.

## 2. 스며들다

교육미술관 통로를 통해 흘러가는 선한 영향력이  
아이들의 마음에 시와 그림이 되어 스며들기를 소망합니다.



교실 속 그림책]의 모든 어린이창작그림책은  
교육미술관 통로 [www.museum-tongro.com](http://www.museum-tongro.com)에서  
eBOOK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비야콤

76810



9 791195 744688

ISBN 979-11-957446-5-8 (PDF)

ISBN 979-11-957446-5-7 (세트)